

# VIP REPORT



## ■ 해외직접투자의 한·일간 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발행인 : 김 주 현  
편집주간 : 한 상 완  
편집위원 : 이장균, 주원, 이주량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Tel (02)3669-4334 Fax (02)3669-4332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02-3669-433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 ■ 해외직접투자의 한·일간 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i

1. 세계 경제위기: 또 다른 도약의 계기 ..... 1

2. 한·일간의 비교를 통하여 본 해외직접투자의 특징 ..... 3

3. 정책적 시사점 ..... 15

■ **HRI 경제 지표** ..... 18

## 1. 세계경제위기: 또 다른 도약의 계기

세계경제위기는 한국경제에 대한 거대한 '도전(挑戰)'이지만, 성공적으로 '응전(應戰)'할 경우 새로운 도약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적인 역사학자인 토인비는 문명이 발전하고 쇠퇴하는 과정을 '도전'과 '응전'의 틀로 설명하였다. 역사적으로 세계적인 경제 위기는 항상 '도전'이었으며 이를 이겨내고자 '응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강대국, 선진국, 산업 그리고 기업이 출현하고 성장하였다. 국가 차원에서 보면, 미국은 1930년대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위기에 성공적으로 '응전'함으로써 20세기 후반에 세계 최강대국으로의 변신에 성공했다. 일본은 두 차례의 오일쇼크를 극복하면서 세계 최고의 공산품 생산과 수출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산업 차원에서는 1873년에서 1896년까지 있었던 장기 불황 기간('Long Depression')동안 철도, 석유, 그리고 철강 산업이 새롭게 발흥했으며, 세계 금융계를 지배하고 있는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 모간 스탠리(Morgan Stanley) 등은 1930년대의 대공황을 살아남으면서 대형화에 성공했다.

한국 기업들도 현재의 '도전'에 대해 성공적으로 '응전'할 경우 국가경제의 새로운 도약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회에 공격적인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세계 시장 지배력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한국기업들은 부채비율이 2007년 말 기준 98.9%(일본은 2007년 3월말 기준 205.3%)에 불과하여 재무상태가 건전하고 자금동원 여력이 크다. 또한, 서브 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로 세계적인 자산가치 하락이 야기되어 우리의 해외직접투자 확대에 유리한 여건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보다 앞서서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응전'에 나선 일본의 최근 해외직접투자 행태와의 비교를 통해 바람직한 전략을 도출해볼 필요가 있다.

## 2. 한·일간의 비교를 통하여 본 해외직접투자의 특징

첫째,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규모 측면에서 절대적, 상대적으로 열세를 기록하고 있어서 세계 경제 위기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2008년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증가율은 1.4%에 그쳐 77.1%를 기록한 일본에 뒤지고 있다. 상대적인 기준에서도 그러하였다. 2007년 한국의 국가 GDP대비 순 해외직접투자는 1.5%인 반면 일본은 1.6%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기준 국내 고정자본형성 대비 순 해외직접투자 비중도 한국은 5.5%인 반면 일본은 7.2% 그리고 세계 전체적으로는 16.2%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둘째,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아시아지역에 편중되어 있어서 저임금과 수출증대의 생산비용 절감형 단계에 머물러 있다. 2008년 일본 기업들의 해외투자는 40% 이상 집중된 지역이 없는데 반하여, 한국 기업들은 아시아 지역에만 전체의 49.7%에 해당하는 108억 달러를 투자했다. 이중 중국에 대한 투자가 37억 6천만 달러로 아시아 지역 투자의 34.8%에 달한다. 이와 같은 투자 지역의 편중성은 한국기업들이 생산비용 절감형 투

자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일본의 기업들은 전 세계적으로 균등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현지시장 침투형 단계로 해외직접투자가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2007년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의 제조업체들은 해외직접투자를 수출 촉진이나 생산비용 절감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한다는 경우가 각각 28.5%와 32.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본국제협력은행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본기업들은 현지시장의 성장성을 가장 중요시한다고 대답한 경우가 77.3%를 차지하고 있다.

**셋째, 투자 분야에서도 상대적인 취약성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해외직접투자 중 제조업 비중이 순 투자 기준으로 2006년 47.2%에서 2007년 37.6%, 2008년 31.1%로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이다. 반면 일본은 2006년 68.1%, 2007년 53.8%, 2008년(1~9월) 46.5%로 동 비중이 감소하고는 있지만 한국보다 느리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의 제조업 해외투자의 비중 감소는 투자 규모가 줄어들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과 보험업 해외투자 규모가 급증한 데에 따른 통계상 착시현상에 불과하다. 이는 일본이 해외직접투자를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제조업을 위한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는 데 있어 한국보다 앞서 있음을 의미한다. 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도 한국은 2008년 4/4분기에 들면서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크게 감소한 모습이나, 일본은 그 비중을 꾸준히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무역수지 개선 효과는 비중이나 지역측면에서 일본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접투자가 무역수지개선에 가져오는 효과는 한국과 일본이 비슷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양국 모두 유럽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우리나라 기업의 현지법인에 대한 수출과 이로부터의 수입은 각각 1,115억 달러(전체의 30.0%)와 424억 달러(전체의 11.8%)로 691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는 2006년 기준 32.4%의 수출과 18.1%의 수입을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 일본의 현지법인과 국내 간의 무역흑자 규모는 3조 5,910억 엔이었지만 2006년에는 12조 4,960억 엔으로 3.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해외직접투자의 한·일간 비교 >**

	한국	일본
규모	-2008년 217억 달러(실행 기준) 전년대비 성장률 1.4% -2007년 총고정자본형성 대비 5.5%	-2008년 1,301억 달러 (순 투자기준) 전년대비 성장률 77.5% -2007년 총고정자본형성 대비 7.2%
지역별 편중성	-2008년 아시아지역이 49.7%	-2006~08년 40%이상 집중된 지역 없음
산업별 비중	-제조업의 비중 하락 (2008년 31.1%) -광업과 도·소매업의 비중 증가	-제조업의 비중 하락 (2008년 46.5%) -보험과 금융업의 비중 증가
무역수지 개선	-2007년 수출 1,115억 달러 (30.0%) -수입 424억 달러 (11.8%)	-2006년 수출 23조 엔 (32.4%) -수입 11조 엔 (18.1%)

### 3. 정책적 시사점

**첫째,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통하여 현 세계 경제위기를 우리 기업들의 세계 위상 제고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재무상태가 좋은 한국기업들에게는 전 세계적인 자산과 주식가격의 하락은 투자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한다. 세계 경제위기 이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우량하고 경쟁력 있는 생산시설을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해 금융보호주의에 뒤이어 주요 국가들이 자국민들의 취업기회보장과 산업보호를 명분으로 높이고 있는 무역장벽을 우회할 수 있는 수단이 요구된다. 더 이상 세계시장 개척을 수출에만 의존할 수 없다. 이번 기회를 기업들의 세계화를 위한 또 다른 계기를 활용한다면 그만큼 우리기업들의 세계 속에서의 위상은 높아질 것이다.

**둘째, 해외직접투자가 시장 확대 차원의 지역 다변화로 이행되어야 한다.** 투자지역 다변화는 위험 분산 효과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의 범위 확대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우리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는 아시아, 특히 중국에 집중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해외직접투자가 지역 또는 국가 위험(Region & Country Risk)에 대한 회피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동 지역의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하는 생산원가 절감형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의미한다. 향후의 해외직접투자는 지역별 분산과 현지화를 통하여 해외시장 확대형 단계로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제조업 부문과 자원개발 부문의 해외투자 확대를 늘려야 한다.** 제조업 부문의 지나치게 빠른 비중 축소는 자칫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소지가 있다. 한국 경제의 중심은 아직 제조업에 있으며, 비제조업 부문은 국제 경쟁력이 아직 취약한 상태이다. 따라서 신흥국 등의 해외시장 확대, 우수인력 등 경쟁우위 요소 획득, 저렴한 인건비 등의 원가절감 요소 활용과 같은 우리 제조업 경쟁력 제고 차원의 해외 직접투자가 더욱 더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광업부문의 해외직접투자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우리제조업이 필요로 하는 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한국의 비제조업 부문 해외직접투자는 특히 금융 부문의 강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비제조업 부문 해외직접투자는 광업과 도·소매업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국내 제조업이 필요로 하는 원자재 구매나 판로 확보에 치중되어 있다. 즉, 국내 제조업의 전후방 산업 완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최근 금융과 보험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동 부분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도로 평가된다. 금융 부문은 제조업의 해외 진출을 도와서 경쟁력을 제고시켜줄 뿐만 아니라, 금융 산업 자체가 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효과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시장 규모의 한계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세계시장 진출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일본처럼 보다 적극적으로 금융 부문에 대한 세계시장 진출이 필요하다.

## 해외직접투자의 한 · 일간 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 1. 세계경제위기: 또 다른 도약의 계기

- 세계경제위기는 한국경제에 대한 거대한 '도전(挑戰)'이며 이에 어떻게 '응전(應戰)'하느냐가 앞으로의 발전가능성과 경로를 결정
  - 세계적인 역사학자인 토인비는 문명이 발전하고 쇠퇴하는 과정을 '도전(挑戰)'과 '응전(應戰)'의 틀을 가지고 설명
    - 그의 책 『역사의 연구』에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역사상 상당기간 존재했던 문명을 약 20개 정도로 나누고 이들이 성장하고 몰락했던 과정을 추적
    - 이들 문명들이 위기가 닥쳤을 때 이를 회피하지 않고 사력을 다해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그들의 생존뿐만 아니라 발전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보여줌
  - 역사적으로 세계적인 경제위기는 '도전'이었으며 이를 이겨내고자 '응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강대국, 선진국, 산업 그리고 기업이 출현하고 성장
    - 미국은 1930년대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위기에 성공적으로 '응전'함으로써 20세기 후반에 세계 최강대국으로의 변신에 성공
    - 일본은 두 차례의 오일쇼크를 극복하면서 세계 최고의 공산품 생산과 수출국가로 자리매김
    - 1873년에서 1896년까지 있었던 "Long Depression"동안 철도, 석유, 그리고 철강 산업이 새롭게 발흥<sup>1)</sup>
    -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금융계를 지배하고 있는 Goldman Sachs, Morgan Stanley, 등은 1930년대의 대공황을 살아남으면서 대형화합<sup>2)</sup>
  - 한국의 기업들이 현재의 '도전'에 대해 성공적으로 '응전'할 경우 국가경제의 새로운 도약이 가능함을 의미

1) "How the Crash Will Reshape America," The Atlantic, Mar 2009.

2) Brown, Ellen H. (2008), Web of Debt, LA, CA, Third Millenium Press.

- 해외직접투자는 한국기업들이 세계경제위기라는 '도전'에 '응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현재 전체적으로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 조성
  - IMF는 최근 2009년의 세계경제에 대해 더욱 비관적인 견해를 밝혔으며 UNCTAD는 세계 해외직접투자가 2008년의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 2009년 1월의 전망에서는 세계경제의 성장률을 0.5%로 예측하였으나 3월 19일의 IMF Survey를 통해서는 -0.5%~-1%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예고
    - UNCTAD는 2008년의 해외직접투자 유입규모를 2007년에 비해 21% 감소한 1조 4천억 달러로 추정하였고 2009년에도 이런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봄<sup>3)</sup>
  - 좋은 기업들의 재무상태, 전 세계적으로 낮아진 자산 가격 그리고 각국의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등으로 투자환경은 상대적으로 유리
    - 한국기업들의 평균적인 부채비율은 2007년 말 98.9%(일본은 2007년 3월 기준으로 205.3%)로 상대적으로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자금동원 능력이 여유
    - 2008년 4/4분기 동안 전 세계의 80%가 넘는 지역에서 집값이 하락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2007년 같은 기간의 27%와 큰 차이<sup>4)</sup>
    - 2007년 10월 9일 14,164.53으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하였던 다우존스 종합지수는 2009년 4월 1일 현재 46.28%가 하락한 7,608.92
    - UNCTAD는 세계 각국들이 앞 다투어 해외자본유치에 나서면서 해외직접투자와 관련된 제도적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
  
- 한국보다 먼저 세계화에 나선 일본이 최근 보이고 있는 해외직접투자 행태와의 비교는 바람직한 '응전'전략을 도출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작업임
  - 일본과 기업들은 한국보다 앞서서 '응전'에 성공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수단에는 해외직접투자도 포함

---

3) 『Global FDI in Decline due to the Financial Crisis, and a Further Drop Expected』, UNCTAD Investment Brief, UNCTAD, No 1, 2009.

4) "Knight Frank Global House Price Index, Q4 2008," Knight Frank (<http://www.knightfrank.com.ua>).



## 2. 한·일간의 비교를 통하여 본 해외직접투자의 특징

□ 규모: 세계경제위기를 활용하기에 미흡

○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2008년 말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일본의 해외직접 투자는 크게 증가

- 2006년과 2007년 한국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지만 2008년 들어 증가세가 크게 줄어들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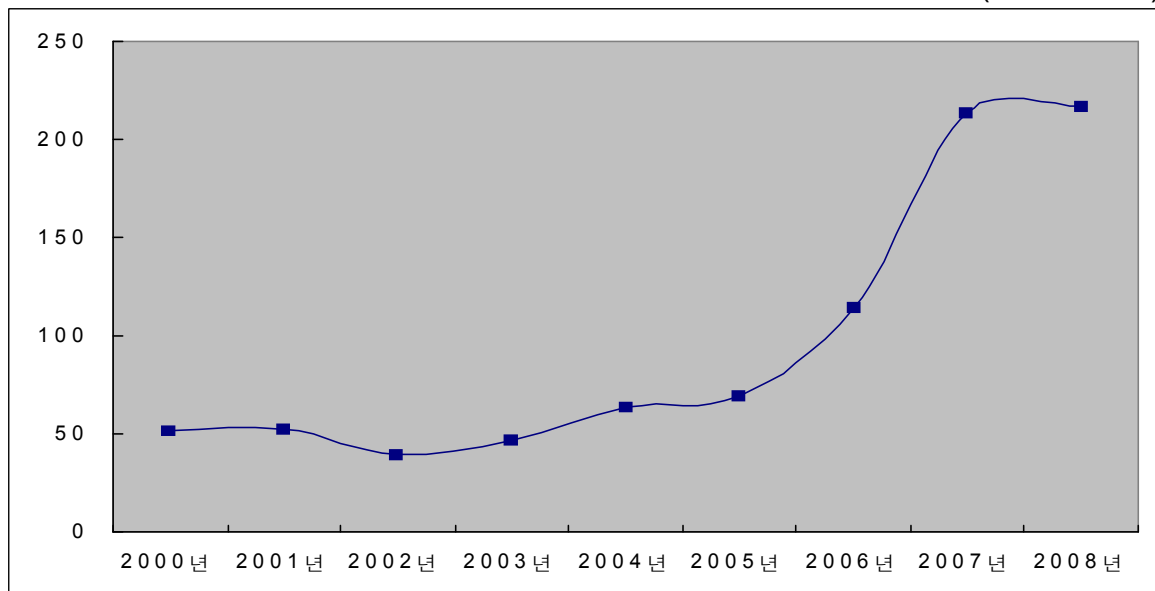
· 실행기준으로 2006년 114억 8천만 달러로 전년대비 65.1%가 증가하였고 2007년에는 214억 1천만 달러로 86.5%가 늘어남

· 그러나 2008년에는 217억 1천만 달러로 2007년에 214억 1천만 달러에 비해 1.4%의 증가에 머물름

· 특히 2008년 한국기업들이 4/4분기 동안 해외에 투자한 금액은 전년 동기의 96억 1천만 달러와 비교하여 59.1%가 줄어든 39억 3천만 달러로 집계

<2000~2008년, 한국의 대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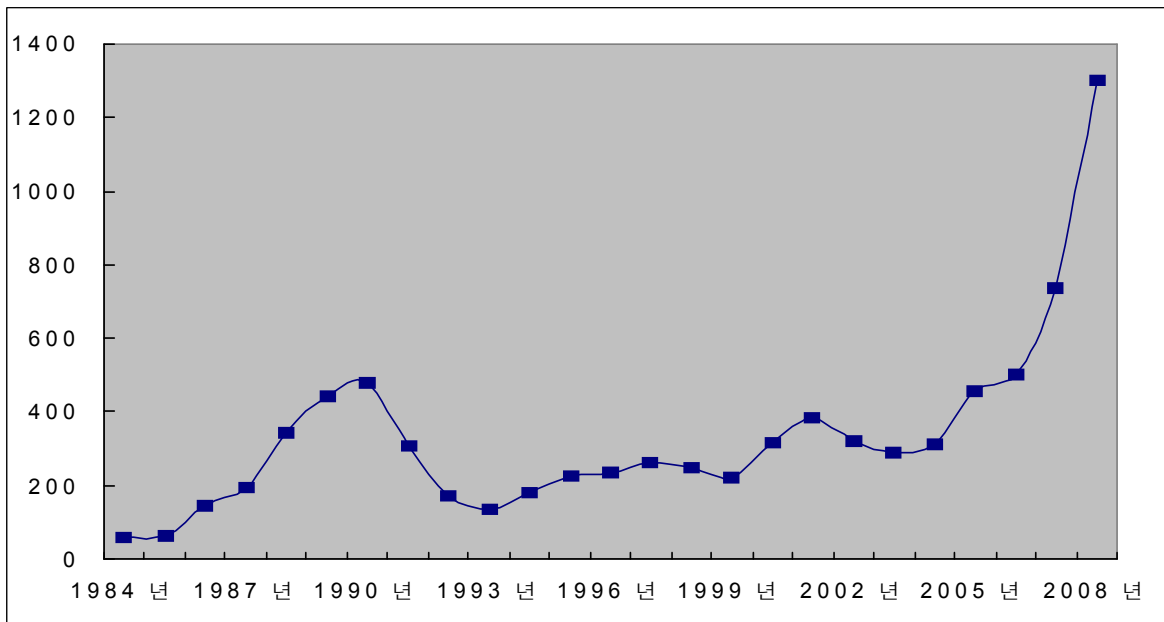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주: 실행기준 임.

## 해외직접투자의 한일간 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는 장기불황의 시작과 더불어 줄어들었다가 **2005년** 이후 본격적으로 회복
  - 1983년 36억 1,200만 달러였던 일본의 순 해외직접투자는 1986년 144억 8천만 달러로 4배 가까이 늘어나고 1990년 480억 2,400만 달러에 이룸
  - 1991년 307억 2,600만 달러로 하락세에 진입한 일본의 순 해외직접투자는 1992년 137억 1,400만 달러까지 떨어짐
  - 2005년 454억 6,100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2006년 501억 6,500만 달러 그리고 2007년 734억 8,300만 달러로 상승
  
-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현실화되기 시작한 **2008년**에도 해외직접투자는 급상승
  - 2008년 순 해외투자 기준으로 1,301억 4,200만 달러(잠정)를 기록하여 2007년에 비해 무려 77.1%나 증가

###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억 달러)



자료: JETRO (<http://www.jetro.jp.go>).

참고: 1) 국제수지상(BOP)에서 집계된 수치에 근거.

2) 순 해외직접투자(net outward FDI flow)(=실행된 해외직접투자-회수분)만을 고려.

3) 2008년은 잠정치.

-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국가경제규모와 대비할 경우 일본에 비해 낮은 편이며 세계평균보다도 떨어짐
  - 한국과 일본의 순 해외직접투자규모를 각각의 전체 GDP와 비교하였을 경우 한국은 일본에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남
    - 2007년 한국의 순 해외직접투자는 152억 7천만 달러 그리고 GDP는 9,697억 9천만 달러로 1.5% 수준
    - 같은 기간 일본의 순 해외직접투자는 735억 4천만 달러 그리고 GDP는 4조 3,842억 5천만 달러로 1.6% 수준
  - 순 해외직접투자를 국내의 총 고정자본 형성으로 나눈 비율에서도 한국은 일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07년 한국의 순 해외직접투자를 국내의 총 고정자본 형성과 비교하면 5.5%지만 일본은 7.2%로 차이를 보임
    - 세계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동 비율은 1990~2000년 평균 7.9%에서 2005년 9.0% 그리고 2007년 16.2%로 크게 증가
    - 선진지역의 경우 2007년 21.2%로 세계평균보다 높은 수준 유지

<해외직접투자의 경제규모에 대비한 비율 변화추이>

(단위: 억 달러, %)

		1990-2000 (년 평균)	2005	2006	2007
한국	규모	31.0	42.9	81.2	152.7
	총 고정자본 형성에 대한 비율	2.1	1.9	3.2	5.5
일본	규모	254.0	457.8	502.6	735.4
	총 고정자본 형성에 대한 비율	2.2	4.3	4.9	7.2
선진국	규모	4,382.5	7,488.8	10,871.8	16,921.4
	총 고정자본 형성에 대한 비율	9.1	10.9	14.8	21.2
세계전체	규모	4,925.3	8,808.0	13,231.5	19,965.1
	총 고정자본 형성에 대한 비율	7.9	9.0	12.2	16.2

자료: 『World Investment Report 2008』, UNCTAD, 2008.

참고: 순 해외직접투자(net outward FDI flow)(=실행된 해외직접투자-회수분)만을 고려.

□ 지역적 분포: 생산비용절감을 위해 아시아에 편중

○ 한국은 아직 아시아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 다변화가 시작된 모습

- 한국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는 지역적으로 아직은 불균등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가 여전히 주요한 투자 대상지역
  - 2008년 우리기업들은 아시아지역에 전체 217억 1천만 달러의 49.7%에 해당하는 108억 달러를 투자
  - 중국에 대한 투자규모는 2008년 37억 6천 만 달러 전체의 17.3% 그리고 아시아지역 전체에 대한 투자의 34.8%를 차지
  - 2007년의 경우 중국에 대한 투자는 53억 달러로 전체 214억 1천만 달러의 24.7%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의 48.1%에 해당
- 최근 북미지역에 대한 한국기업들의 투자가 미국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임
  - 2008년 북미지역에 대한 투자는 50억 9천만 달러로 전체의 23.4%를 차지하였고 특히 2007년과 비교하였을 때 증가율도 41.6%를 기록
  - 미국에 대한 투자는 2006년 18억 달러에서 2007년 34억 5천만 달러로 그리고 2008년에는 북미지역 전체투자의 96.2%에 해당하는 49억 3천만 달러로 증가

<지역별 한국의 FDI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2006		2007		2008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아시아	6,283	54.7	11,039	51.5	10,809	49.7
북미	2,195	19.1	3,599	16.8	5,097	23.4
유럽	1,213	10.5	4,372	20.4	2,988	13.7
중남미	1,213	10.5	1,464	6.8	1,617	7.4
대양주	193	1.6	539	2.5	730	3.3
아프리카	214	1.8	239	1.1	292	1.3
중동	170	1.4	158	0.7	179	0.8
합계	11,481	100	21,411	100	21,712	1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일본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는 지역적으로 균등히 분포된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최근 북미와 중남미의 비중이 증가
  - 그동안 35% 정도를 차지하였던 서유럽과 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비중이 최근 하락세를 경험하기 시작
    - 2006년 180억 달러의 순 해외직접투자자로 전체의 35.9%를 차지하였던 서유럽은 2008년 222억 달러로 증가하였지만 비중은 17.1%로 감소
    - 2006년 171억 달러로 전체의 34.2%를 점하였던 아시아에 대한 순 해외직접투자자는 2008년 233억 달러로 그 규모가 증가하였지만 비중은 17.9%로 감소
  - 북미지역에 대한 투자는 그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였고 특히 중남미 지역이 일본기업들의 새로운 중요한 투자대상으로 떠오름
    - 북미지역에 대한 투자는 2006년 101억 달러로 전체의 20.3%를 차지하였고 2007년 173억 달러로 23.7% 그리고 2008년에는 460억 달러 35.4%로 높아짐
    - 중남미 지역에 대한 일본기업들의 투자는 2006년 25억 달러에서 2008년 296억 달러로 2년 사이에 10배 이상의 규모로 성장하여 전체의 22.8%를 점유

<지역별로 본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단위: 백만 달러, %)

	2006		2007		2008(P)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아시아	17,167	34.2	19,388	26.4	23,311	17.9
북아메리카	10,188	20.3	17,385	23.7	46,059	35.4
중남미	2,547	5.0	9,482	12.9	29,622	22.8
오세아니아	723	1.4	4,204	5.7	5,571	4.3
서유럽	18,029	35.9	20,456	27.8	22,273	17.1
동유럽과 러시아	367	0.7	509	0.7	650	0.5
중동	242	0.4	958	1.3	1,139	0.9
아프리카	899	1.7	1,101	1.5	1,519	1.2
전체	50,165	100	73,483	100	130,142	100

자료: JETRO (<http://www.jetro.jp.go>).

참고: 1) 국제수지상(BOP)에서 집계된 수치에 근거.

2) 순 해외직접투자(net outward FDI flow)(=실행된 해외직접투자-회수분)만을 고려.

3) 2008년은 잠정치.

## 해외직접투자의 한·일간 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 생산비용을 중요시하는 한국기업들과 해외시장의 성장성에 비중을 두는 일본기업들의 다른 해외직접투자동기가 지역적인 분포에서 차이를 가져옴
- 한국의 제조 기업들은 해외직접투자를 수출에 대한 대체 수단이나 생산비용 절감의 기회로 활용
  - 2006년 해외직접투자를 수출촉진이 수단이나 생산비용절감의 기회로 활용한다고 답한 해외진출 기업의 비율은 각각 28.5%와 32.9% 차이

### <2006년, 한국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동기>

(단위: 건, %)

	2006	
	건수	비중
수출촉진	645	28.5
저임활용	746	32.9
원자재확보	109	4.8
자원개발	55	2.4
보호무역주의 타개	36	1.5
선진기술 도입	50	2.2
기타	620	27.4
전체	2,261	1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일본 제조업체들의 경우는 현지시장의 성장성을 동기로 드는 경우가 증가
  - 2003년 시장의 성장성을 이유로 든 기업은 70.9%였지만 2006년 77.3%로 증가

### <일본 제조업체의 해외사업전개 시 중점 고려 요소의 변화>

(단위: %)

		2003	2006
낮은 원가	저렴한 원부자재	26.2	14.8
	저렴한 노동력	73.8	56.1
현지시장	현지시장의 성장성	70.9	77.3
	현지시장의 규모	29.1	30.7
일반투자환경	현지 인프라의 정비정도	19.6	14.1
	리스크 분산	9.8	10.3
	산업집적환경	16.2	14.1
	조립 메이커의 공급거점	29.3	26.5
	우수한 인재	25.1	20.4

자료: 「각 년도 해외직접투자 앙케트 조사결과보고」, 일본 국제협력은행.

□ 산업별 구성: 빠르게 감소하는 제조업 비중

○ 한국은 제조업의 비중이 줄어든 반면 도·소매업과 광산업의 비중은 증가

- 최근 한국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
  - 2006년 54억 2천만 달러로 전체의 47.2%를 차지하였던 제조업은 2007년 80억 6천만 달러로 증가하였으나 그 상대적인 비중은 37.6%에 머무름
  - 2008년에는 67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체의 31.1%로 더욱 하락
- 광업과 도·소매업은 그 비중을 크게 늘렸으며 특히 도·소매업이 약진
  - 광업은 2006년 14억 3천 만 달러에서 2007년 20억 5천 만 달러로 43.3% 증가하였고 2008년에는 34억 9천만 달러로 늘어나 전체의 16.0% 차지
  - 도·소매업은 2008년 26억 2천만 달러로 전체의 16.7%를 점유하였고 특히 4/4분기 2007년과 비교하여 2.9% 성장

<업종별 한국의 FDI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2006		2007		2008		2007, 4/4	2008, 4/4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농업, 임업, 및 어업	44	0.3	101	0.4	84	0.3	31	5	-84.8
광업	1,436	12.5	2,051	9.5	3,491	16.0	722	295	-59.2
제조업	5,422	47.2	8,063	37.6	6,767	31.1	2,920	1,270	-56.5
건설업	492	4.2	850	3.9	851	3.9	184	100	-45.7
도·소매업	1,208	10.5	2,033	9.5	3,625	16.7	1,199	1,234	2.9
숙박 및 음식점 업	226	1.9	362	1.6	351	1.6	76	21	-72.2
운수업	185	1.6	350	1.6	520	2.3	84	120	43.4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28	2.8	518	2.4	596	2.7	226	127	-44.0
부동산 및 임대업	804	7.0	1,530	7.1	1,646	7.5	590	234	-60.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81	3.3	3,012	14.0	1,778	8.1	2,533	280	-88.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32	1.1	211	0.9	198	0.9	51	8	-85.2
기타	824	7.1	2,329	10.8	1,804	8.3	997	239	-76.0
합계	11,481	100	21,411	100	21,712	100	9,612	3,931	-59.1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해외직접투자의 한일간 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 일본도 제조업 비중이 떨어지는 반면에 금융과 보험업의 비중은 증가

- 제조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금융과 보험업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크게 증가
  - 2006년 345억 1,300만 달러로 전체의 68.8%에 달하였던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의 비중은 2008년 (1~9월) 317억 4,500만 달러로 46.5%로 감소
  - 금융과 보험업에서의 순 해외직접투자는 2006년 55억 6,200만 달러로 전체의 10.9%에 불과하였으나 2008년 (1~9월) 182억 8,100만 달러로 전체의 26.3%

### <산업별로 본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단위: 백만 달러, %)

		2006		2007		2008(1월~9월)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제조업	식품	1,025	2.0	12,776	17.4	2,741	4.0
	섬유	180	0.3	371	0.5	624	0.9
	목재와 펄프	420	0.8	745	1.0	563	0.8
	화학과 의약품	4,413	8.8	3,744	5.1	6,490	9.5
	유류	2,921	5.8	-280	n.a.	522	0.8
	고무와 피혁	1,107	2.2	835	1.1	578	0.8
	유리와 세라믹	2,759	5.5	837	1.1	1,211	1.8
	철, 비철금속	1,795	3.5	2,202	3.0	2,448	3.6
	일반기계	1,663	3.3	2,642	3.6	2,281	3.3
	전기기계	7,041	14.0	4,691	6.4	4,088	6.0
	운송장비	8,597	17.1	8,671	11.8	8,420	12.3
	정밀기계	1,420	2.8	1,293	1.8	792	1.2
	제조업 전체	34,513	68.8	39,515	53.8	31,745	46.5
비제조업	농림업	42	0.08	93	0.1	53	0.1
	수산업	28	0.06	64	0.1	61	0.1
	광업	1,577	3.1	4,053	5.5	5,960	8.7
	건설	-64	n.a.	490	0.7	284	0.4
	운수업	1,507	3.0	2,133	2.9	1,707	2.5
	통신업	-3,368	n.a.	-331	n.a.	858	1.3
	도·소매업	5,483	10.9	4,792	6.5	5,870	8.6
	금융과 보험업	5,562	11.0	19,458	26.5	18,281	26.8
	부동산업	-811	n.a.	162	0.2	178	0.3
	서비스업	188	0.3	1,406	1.9	1,677	2.5
비제조업 전체	15,652	31.2	33,968	46.2	36,524	53.5	
전체	50,165	100	73,483	100	68,269	100	

자료: JETRO (<http://www.jetro.jp>).

참고: 1) 국제수지상(BOP)에서 집계된 수치에 근거.

2) 순 해외직접투자(net outward FDI flow)(=실행된 해외직접투자-회수분)만을 고려.



-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투자에 있어서 한국은 최근 주춤거리는 형국이지만 일본은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추세
  - 한국의 광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2008년 4/4분기 크게 감소**
    - 2007년 4/4분기 7억 2천만 달러에서 2억 9천만 달러로 59%이상 감소
  - 일본의 광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2008년 (1~9월) 그 비중을 크게 늘림**
    - 2007년 전체에서 5.5%였던 광업부문의 비중은 2008년 8.7%로 3.2%p 증가하여 약 59억 6천만 달러 기록
- 산업구조 고도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조업의 위축을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방지한다는 면에서 일본이 한국보다 앞선다고 할 수 있음
  - 한국의 제조업이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이후 전체 경제에서 2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 이하로 떨어짐**
    - 2008년 8,575억 달러로 추정되었던 한국의 GDP에서 2차 산업의 비중은 39.5%지만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는 31.1%점유
  - 반면 일본의 제조업이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전체 경제에서 2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08년 4조 8,440억 달러로 추정되었던 일본의 GDP에서 2차 산업의 비중은 26.4%지만 2008년(1~9월)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는 46.5%차지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 추이>

(단위: %)

	2006	2007	2008	
			FDI의 비중	GDP상에서 2차 산업의 비중
한국	47.2	37.6	31.1	39.5
일본	68.8	53.8	46.5(1~9월까지)	26.4

자료: 1) 한국은 한국수출입은행자료로서 각 년도에 행해진 해외직접투자 기준.  
 2) 일본은 JETRO자료에 근거하며 각 년도의 순 해외투자가 기준.  
 3) GDP상에서의 2차 산업의 기준은 CIA World Fact Book에 근거.

## 해외직접투자의 한·일간 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 국내경제 영향: 유사한 무역수지 개선효과

○ 해외직접투자는 2007년 한국의 무역수지를 691억 달러 개선시켰으며 산업별로는 도·소매업이 지역별로는 유럽이 중요한 역할을 함

- 2007년 현지법인에 대한 수출과 수입은 각각 1,115억 달러와 424억 달러로 전체의 30.0%와 11.8% 차지

- 도·소매업은 가장 큰 규모로 무역수지개선효과를 불러옴

· '도매 및 소매업'은 2007년 한국에서 현지법인으로의 수출이 673억 달러인 반면 현지법인으로부터 한국으로의 수입은 139억 달러로 534억 달러 흑자

· 투자 잔액 대비 수출액과 수입액을 각각 뜻하는 수출유발효과와 수입유발효과는 994.7과 205.4로 계산되어 '도매 및 소매업'의 무역수지 개선효과는 789.3

### <2007년, 업종별 해외직접투자의 수출입 유발효과>

(단위: 백만 달러, %)

	투자잔액 (A)	수출(한국→현지법인)		수입(현지법인→한국)		무역수지개선 효과 (D-E)
		금액(B)	수출유발효과 (D=B/A)	금액(C)	수입유발효과 (E=C/A)	
제조업	26,516	41,853	157.8	27,243	102.7	55.1
도매 및 소매업	6,769	67,333	994.7	13,901	205.4	789.3
부동산 및 임대업	2,124	102	4.8	143	6.8	-2.0
건설업	501	5	1.2	-	-	1.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12	187	36.6	86	16.8	19.8
운수업	623	1,721	276.3	437	70.1	206.2
광업	2,615	260	10.0	306	11.7	-1.8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484	26	1.8	213	14.4	-12.6
숙박 및 음식점업	568	3	0.6	4	0.8	-0.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481	8	1.8	0.3	0.1	1.8
기타	771	39	5.1	67	8.8	-3.7
전체	42,968	111,542 (30.0)	259.6	42,404 (11.8)	98.7	160.9

자료: 『2007회계년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한국수출입은행, 2008년 10월.

주: 괄호안의 숫자는 2007년 전체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 2007년 아시아에 있는 현지법인과 연관된 수출입이 규모면에서 가장 크지만 무역수지개선에 있어서는 유럽소재의 현지법인들이 가장 크게 기여
  - 아시아지역에 위치한 현지법인들이 유발시킨 수출입은 각각 581억 달러와 370억 달러였고 무역수지흑자는 211억 달러
  - 유럽에 소재한 현지법인들이 유발시킨 수출입은 각각 285억 달러와 31억 달러였지만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254억 달러로 가장 큼

<2007년, 지역별 해외직접투자의 수출입 유발효과>

(단위: 백만 달러, %)

	투자잔액 (A)	수출(한국→현지법인)		수입(현지법인→한국)		무역수지개선 효과 (D-E)
		금액(B)	수출유발효과(D=B/A)	금액(C)	수입유발효과(E=C/A)	
아시아	24,002	58,172	242.4	37,079	154.5	87.9
북미	8,162	19,676	241.0	1,864	22.8	218.2
유럽	7,054	28,575	405.1	3,142	44.5	360.5
기타	3,748	5,118	136.6	318	8.5	128.1

자료: 『2007회계년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한국수출입은행, 2008년 10월.

-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는 2006년 12조 엔 규모로 무역수지를 개선시켰으며 지역별로는 유럽에 대한 수출입이 가장 큰 역할
  - 2006년 현지법인에 대한 수출과 수입은 각각 23조 엔과 11조 엔으로 집계
    - 1995년 7조 160억 엔으로 전체 수출의 17.1%에 불과했던 수출유발규모는 2006년 23조 9,030억 엔으로 전체의 32.4%로 증가
    - 수입유발규모는 1995년 3조 4,250억 엔으로 전체의 11.6%에서 2006년 11조 4,070억 엔으로 전체의 18.1%의 차지
    - 1995년 현지법인과 일본 간의 무역수지흑자 규모는 3조 5,910억 엔이었지만 2006년에는 12조 4,960억 엔으로 3.4배 이상 증가
  - 지역적으로 유럽 현지법인과 수출입이 무역수지개선에 가장 크게 기여
    - 2006년 아시아에 있는 현지법인들로 전체의 40.6%에 해당하는 9조 7,250억 엔을 수출하고 이들로부터 82.5%에 해당하는 9조 4,310억 엔을 수입

## 해외직접투자의 한·일간 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 유럽에 있는 현지법인들과의 수출과 수입은 각각 4조 6,930억 엔 그리고 5,260억 엔을 기록하여 4조 1,670억 엔의 흑자를 올림

### <일본 해외직접투자의 수출과 수입유발효과>

(단위: 10억 엔, %)

		1995	2000	2005	2006
수출유발	유럽	1,303	2,765	4,895	4,693
	아시아	2,800	5,223	8,757	9,725
	북미	2,623	5,445	6,961	7,937
	기타지역	289	784	1,329	1,548
	전체	7,016 (17.1)	14,216 (28.5)	21,942 (33.7)	23,903 (32.4)
수입유발	유럽	118	287	354	526
	아시아	2,271	4,924	7,790	9,413
	북미	517	681	766	1,093
	기타지역	519	222	377	375
	규모	3,425 (11.6)	6,113 (16.0)	9,287 (16.7)	11,407 (18.1)

자료: 『Summary of the 37th Survey on Overseas Business Activities』,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May 30, 2008.

- 주: 1) 2007년 7월 1일 2006 회계연도를 대상으로 16,370개의 해외지사와 일본의 모회사에 설문지를 보내 회수한(73.5%)자료를 바탕으로 함.  
2) 보험과 금융업 그리고 부동산업은 제외.

### ○ 한국과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는 유사한 형태로 국내경제에 영향을 끼침

- 해외 현지법인과의 수출입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슷함
  - 한국과 일본의 해외 현지법인과의 수출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0.0%(2007년)과 32.4%(2006년)
  - 수입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1.8%와 18.1%
- 무역수지개선에 있어서는 유럽에 위치한 해외현지법인들과의 수출입이 한국과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함
  - 한국은 유럽 현지법인과의 수출입에 있어 2007년 254억 달러 그리고 일본은 2006년 4조 1,670억 엔의 무역흑자를 기록

### 3. 정책적 시사점

-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통하여 경제위기를 한국기업들의 세계 위상 제고의 기회로 활용해야 함
  - 상대적으로 재무상태가 좋은 한국기업에게는 전 세계적인 자산과 주식가격의 하락은 투자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음을 의미
    - 세계경제위기는 이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우량하고 경쟁력 있는 생산시설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금융보호주의에 뒤이어 주요 국가들이 자국민들의 취업기회보장과 산업보호를 명분으로 높이고 있는 무역장벽을 우회할 수 있는 수단이 요구됨
    - 세계 곳곳에서 자유무역의 점진적인 후퇴나 이의 진전이 멈춰서는 현상이 목격되고 있으며 이는 시장개척을 더 이상 무역에만 의존할 수 없음을 뜻함
- 적극적인 해외시장 공략을 위한 해외직접투자의 지역적 다변화가 필요함
  - 한국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는 아시아, 특히 중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위험회피의 차원에서 불리
    - IMF는 2009년 미국경제는 -2.6%, EURO지역은 -3.2%, 일본은 -5.8% 등으로 선진국들 간에도 GDP성장률에 있어 뚜렷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추정
    - 후진국들 간에도 6.5%의 중국에서부터 -5.1%의 러시아까지 분포
  -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집중은 한국기업들의 투자유형이 생산원가 절감에 머물러 있음을 의미하며 향후 시장 확대형으로의 이행은 필연적
    - 세계경제가 위기를 벗어나 다시 성장가도에 진입하고 개발도상국의 임금이 상승할 경우 생산비 증가로 해외진출기업들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투자지역을 다양화하려는 노력은 모든 해외투자기업들이 조만간 직면하게 될 과제

- 해외직접투자에 있어서 제조업과 광업부문의 투자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음
  - 우리경제의 국제적인 경쟁력은 아직 제조업이 중심
    - 비제조업 부문의 국제경쟁력은 그간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서비스교역의 성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아직 취약
  -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해외직접투자가 더욱 확대되도록 해야
    - 제조업부문의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한국기업들의 전반적인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경우 경제전체의 경쟁력증진과 직결
    -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제조업부문의 비중이 더 이상 저하되는 것을 막고 한국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정도인 40%선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바람직
  -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투자를 통해 제조업이 필요로 하는 원자재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 자원보유국들에게 자원민족주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칠 경우 이를 타계할 매력적인 단기적인 처방으로 비취질 수 있음을 항상 경계해야
  
- 한국의 비제조업 부문 해외직접투자에서 금융부문의 강화가 요구됨
  - 한국의 비제조업 부문 해외직접투자는 국내제조업을 중심으로 전후방산업의 완성에 초점이 맞추어짐
    - 도·소매업에서의 해외직접투자 증대는 이 부문의 한국으로부터의 높은 수출 유발효과와 대비할 경우 국내 제조업에 대한 판매망 확대로 해석 가능
    - 광업부문에서의 해외직접투자 증대는 국내 제조업이 필요로 하는 원자재 공급원의 확보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음
  - 비제조업 부문에서 금융과 보험업처럼 제조업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높은 산업에서 해외직접투자를 늘리는 노력이 필요

- 금융과 관련된 산업은 향후 우리경제를 이끌 새로운 동력이지만 국내에서의 투자만으로는 성장에 한계
- 일본의 경우 비제조업 부문 해외직접투자에 있어 최근 금융과 보험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 **HRI**

예상한 연구위원 (syeahk@hri.co.kr, 02-3669-4181)  
이장균 수석연구위원 (johnlee@hri.co.kr, 02-3669-4119)

## HRI 經濟 指標

---

### 📌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



주요 경제지표 추이와 전망								
		2007	2008(E)				2009 수정전망	
			상반기	3/4분기	4/4분기	전체		
국민 계정	경제성장률 (%)	5.0	5.3	3.8	-3.4	2.5	-2.2	
	최종소비지출 (%)	4.7	3.1	1.7	-2.4	1.3	-2.5	
	민간소비 (%)	4.5	2.9	1.1	-4.4	0.5	-2.8	
	총고정자본형성 (%)	4.0	0.3	1.4	-8.4	-1.9	-3.7	
	건설투자 (%)	1.2	-1.2	-1.3	-6.1	-2.7	1.8	
	설비투자 (%)	7.6	1.0	4.7	-14.0	-2.0	-11.5	
대외 거래	경상수지 (억 \$)	60	-53.5	-85.8	75.2	-64.1	110	
	통 관 기 준	무역수지 (억 \$)	147	-68	-79	15	-133	66
		수출 (억 \$)	3,715	2,140	1,152	931	4,220	3,613
		증가율 (%)	(14.1)	(20.4)	(27.3)	(-9.9)	(13.6)	(-14.4)
		수입 (억 \$)	3,568	2,208	1,231	915	4,353	3,547
		증가율 (%)	(15.3)	(29.7)	(43.0)	(-9.0)	(22.0)	(-18.5)
기 타	소비자물가 (평균, %)	2.5	4.7				2.8	
	실업률 (%)	3.2	3.2				4.0	
	국제유가(Dubai, \$)	68	94.29				55	
원/\$ 환율 (평균, 원)		929.0	1,103.36				1,250	